

## 전남도, 'AI·블록체인' 교육 지원... 호남권 특화인재 육성한다

총 70억 투입... 19일부터 도내 거주 교육생 모집  
 신기술 창업·산업현장 필요 기술역량강화 등 지원

전라남도는 지역 산업계 디지털 혁신과 블루이코노미 분야를 이끌어갈 인공지능(AI)·블록체인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19일부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 이 교육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 ICT인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의 일환이다. 국비 51억 원, 지방비 19억 5천만 원 등 총 7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전문 인력 1천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도내 기업 재직자,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는 물론 인공지능·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누리집(it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339-6927, 02-761-2061)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비전공자를 위한 기본과정(1개월), 전공자 및 개발자를 위한 심화

과정(1개월), 전남형 지역특화과정(2개월)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로 인공지능 분야와 블록체인 분야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전남형 지역특화과정은 전남의 역점사업인 블루이코노미 관련 지역업체와 제휴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구성해 호남권 특화 인재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비롯 딥러닝 언어교육, 인공지능 영상 및 음성처리 과정, 블록체인 기본과 사례 강의 등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차단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명칭한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예비창업하거나 기업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실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이 꾸려졌다"며 "많은 도민들과 기업들이 참여해서 신기술 창업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역량강화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5·18기록관, 5·18민주화운동 시리즈전 개최

19일~12월31일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시리즈전으로 마련한 'ECCE HOMO展'이 사람들 보라'의 첫 번째 전시를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일빌딩 245 9층 5·18기념공간 기획전실에서 개최한다. 에케 호모(ECCE HOMO)는 신약성서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를 가리키며 한 말로, 예수의 고난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는 문장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시리즈전을 통해 매 분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난을 겪은 인물을 발굴해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전시 'ECCE HOMO展①

이 사람들 보라'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의 타임라인과 관련 사진, 경찰 징계 관련 문서 및 신문기사, 40년이 지난 뒤 징계 취소 관련 문서 및 사진자료로 구성된 아카이브 기획 전시다. 한편, 전일빌딩 3층 전시실 '5·18과 인물', 9층과 10층 전시실 '5·18기념공간'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1월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하루 5차례(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오후 5시30분) 정기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예약 및 관람 문의전화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062-613-8285)으로 하면 된다. /김태엽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선도정책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방적 정책 협치 구조의 '민관 공동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항공사진. /나주시 제공

### 나주시,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 본격 시동

5대정책분야 15개 선도과제 발굴... 20일, 민관공동위 공식 출범  
 개방적 정책 협치 통한 추진 동력 확보·지역사회 통합·발전 촉진

나주시가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발굴한 선도정책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선도정책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방적 정책 협치 구조의 '민관공동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민선 7기 시정 비전으로 선포한 선도정책과제는 나주시가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정책과제로 발굴한 초대형 정책프로젝트다. 이 정책프로젝트는 △영산강 생태복원 △정착마을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각 과제별 학계 전문가, 연구원, 대학(전) 총장 및 교수,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한 자

명인사 51명으로 구성됐다. 세부 사업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를 주축으로 정책고문단, 분과위원회, 정책추진단으로 각각 나뉘어 성공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개방적 정책 협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영산강 생태종합계획,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구축, 마한사 복원 등은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정책 추진 정책 자문과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고문단은 공동위원장 10인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32인(붙임 표)을 위촉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과제들이 하나 하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전남도, 내년 '가고 싶은 섬'에  
 진도 금호도·완도 금당도 선정

전라남도는 내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에서 진도 금호도와 완도 금당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2개 섬에는 섬이 가진 고유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해 섬 경관 개선을 비롯 공원·둘레길·전망대 조성, 마술회관 리모델링, 주민역량 교육 등이 추진된다. 사업비는 섬별로 내년부터 5년간(매해 10억 원) 5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5개 시·군 8개 섬이 신청했으며, 지난 9월 한 달간 섬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섬 고유 생태 자원과 매력적인 섬 문화, 사업의 적합·창의·실현가능성, 타사업과의 연계성, 주민참여 및 시군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섬을 최종 선정했다. 진도 금호도는 36가구, 67명의 주민이 거주중인 섬으로, 멸치와 전복, 바지락, 미역, 톳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섬에 균락으로 자생하고 있는 '생달나무'의 천연항균 성분(시네올, 시멘 등)이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의료체험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섬이다. 완도 금당도는 538가구, 987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섬의 사면이 암반으로 형성돼 있다. 수만년 동안 파도와 풍우에 씻겨 신비로운 형상을 이룬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해안절벽으로 형성된 금당 8경을 비롯해 세포전망대, 해안일주도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가고 싶은 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섬에 산 지원은 물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위 구성,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지원된다"며 "본격적인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들이 자주 찾고 싶은 아름다운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해인 2015년 6개 섬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2개 섬이 추가돼 올해까지 총 16개 섬이 선정됐으며, 이중 9개 섬이 관광객들에게 개방됐다. /박정오 기자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주)하랑**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치평동)